

Macro

Economist 이다은
daeun.lee@daishin.com

RA 이주원
joowon.lee2@daishin.com

한국 수출 경기는 저점을 지나가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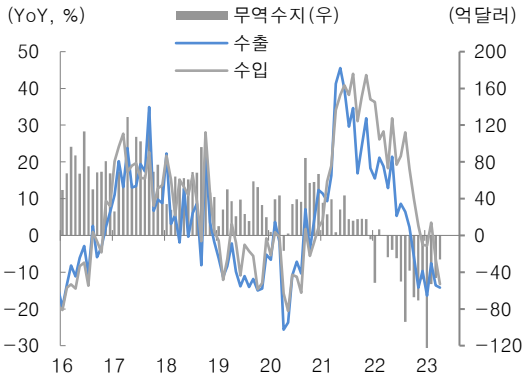
4월 한국 수출은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과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감소세 지속

- 4월 한국 수출은 496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4.2% 감소하였다.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 나가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다만,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수출이 3월 -17.2%에서 4월 -10.4%를 감소폭이 크게 축소된 가운데, 무역수지 적자 폭이 크게 개선되면서 저점은 통과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 [반도체·IT VS 자동차]** 주요 품목별로는 자동차가 +40.3%로 10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선박이 수주 물량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59.1%로 큰 폭 증가 전환하였다. 반면, 대부분의 품목들은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특히, 반도체와 IT품목(디스플레이, 컴퓨터)은 수요 둔화 영향이 지속되면서 각각 -41%, -29%, -73%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 [유럽 VS 중국/아세안]** 자동차와 인프라 관련 수출(예: 일반기계)이 확대되면서 EU향 수출이 9.9% 늘었다. 대미(對美)국 수출도 자동차·인프라 투자 관련 수출은 견조했으나, IT부문 수출이 급감하면서 감소 전환하였다. 반면, 글로벌 수요 둔화로 제조업 중심의 중국, 아세안향 수출은 감소세를 이어 나갔다. 중국 경기가 리오프닝 소비와 정부관련 투자에 편중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수요 둔화로 제조업 경기가 부진한 모습 지속하면서 낙수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못한 모습이다.
- 올해 들어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4월 무역수지 적자폭은 26.2억달러로 큰 폭 축소되었다. 이는 따뜻한 날씨로 인한 수요 둔화와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에너지 수입이 지난달부터 큰 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월 +3.5%→3월-6.4%→4월 -13.3%).

2분기 무역수지는 흑자 전환하는 가운데, 3분기 수출 경기는 반등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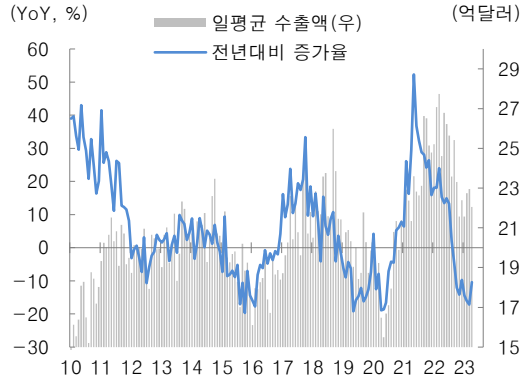
- 수출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3분기는 되어야 제대로 된 반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 수주를 감안할 때 당분간 선박 수출은 양호할 전망이나 전체 수출의 3.4% 비중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세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수출의 반등 강도는 반도체 업황 개선이 의해 좌지우지될 것이다.
- 2분기 반도체 단가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예상보다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주요사가 감산에 돌입하면서 공급 축소와 재고 조정된 영향을 감안할 때 3분기부터는 가격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글로벌 전반적인 경기 둔화를 감안하면 수출의 반등 강도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 IMF 이후 처음으로 1년 넘게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무역수지는 수출 정체기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입 줄어들면서 이르면 5~6월 중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가 시작된 원인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지만, 하반기부터는 수출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경기 반등이 강하지 못할 경우 4분기 중 에너지 수입이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무역수지가 다시 적자 전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림 1. 한국 수출·수입과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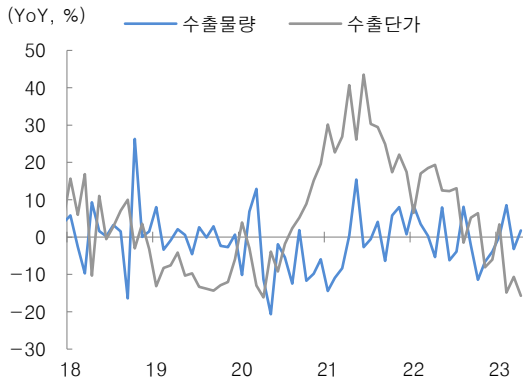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한국 일평균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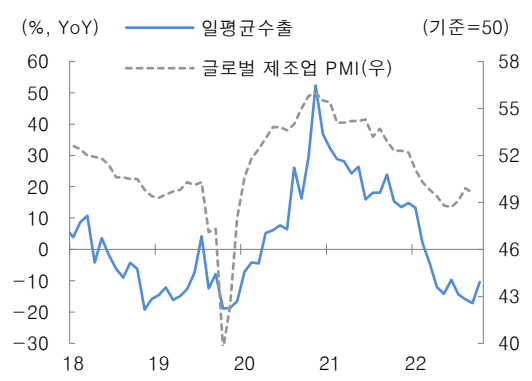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한국 수출 물량 및 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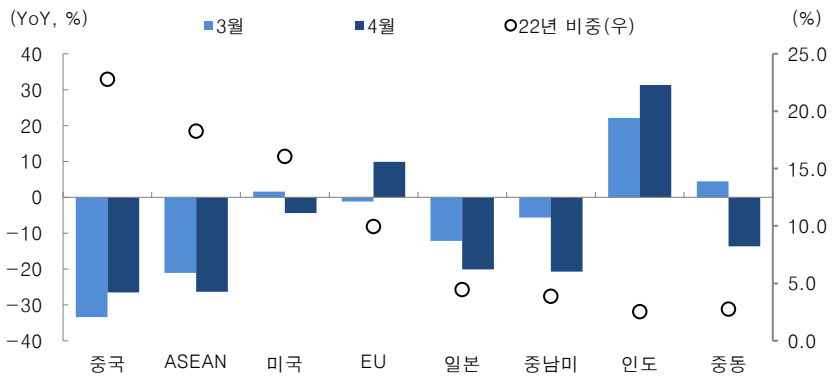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글로벌 제조업 PMI와 일평균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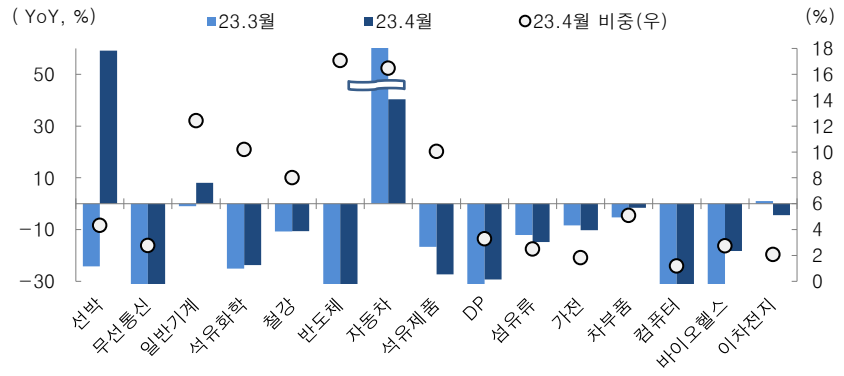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Marki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지역별 수출증가율과 비중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 품목별 수출증가율과 비중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이다은)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